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백중, 부모의 고훈(孤魂) 천도 기원

- 불기 2564년 백중법회 원만 회향 -



지난 9월 2일(음력 7월 15일)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인 백중(우란분절)법회가 봉원사 대중 스님들과 신도들의 참석하에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 진행된 법회는 코로나19 감염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모든 신도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과 체온 측정, 그리고 손 소독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참석 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법회에 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별도로 삼천불전 외부에 의자를 배치하여 참배를 마친 신도들이 법당 밖에서도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전 10시에 거행된 이날의 법회는 코로나19와 갑작스런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신도분들께서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옥과 같은 악도(惡道)에 떨어져 고통받는 선망부모를 구제한다는 일념으로 인해서 기도의 열기는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신통제일 목련존자와 그 어머니의 일화가 담긴 우란분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 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런 어머니가 걱정되어 신통력을 발휘해 찾게 되었다. 그러나 생전에 지은 죄가 많은 까닭에 어머니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목련존자는 본인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 어머니를 구제하려 하였으나 결국 구하지 못하였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머니를 구하지 못함을 알게 된 목련존자는 오직 부처님께서만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나아가 제발 어머니를 구제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이러한 목련존자를 매우 측은하게 생각하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그대의 어머니가 지은 죄는 너무나도 무거워 너의 혼자 힘으로만은 어찌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시방*에 계시는 대덕스님들의 법력을 빌면 가능하다. 그러니 그대는 9순 안거를 끝내고 참회의식을 가지는 자자일, 곧 7월 15일에 좋은 음식과 온갖 과실을 공양하여라. 그러하면 그 공덕으로 살아 있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7대의 선망부모와 친척들까지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장수하고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설하였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7월 15일 우란분절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고, 그 공덕으로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무간지옥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란분경의 내용이다. 곧, 우란분절이란 현세의 부모님을 비롯해 전생의 인연영가를 비롯한 일체의 유주무주 고훈의 성불을 기원하는 불교적인 효(孝)를 확인할 수 있는 불가(佛家)의 큰 명절인 것이다.

법회를 마치고 봉원사 주지 운봉 스님은 “금년 경자년 백중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후 5시까지 모셔야 할 법회를 오후 1시까지 모신 것, 그리고 신도님들께서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셨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함께 공양을 하지 못하고 떡과 생수로 공양을 대신 하시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우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신도님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봉행에 힘써 주신 어장 구해 스님, 귀한 법문을 해주신 법사 만춘 스님,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써주신 대중 스님들 덕분에 법회를 원만히 모시게 되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어 어장 구해 스님은 참석한 신도들과 관음회 임원들 그리고 특별히 소임처의 노고를 치하하시며 “오늘의 인연 공덕으로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맺으셨다.

*시방(十方) : 동·서·남·북·4유(維 : 동북·동남·서남·서북)·상(上)·하(下)의 열 군데

● 백중법회 과일 시주금 ●

관음회장 송성심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가위 다례 및 합동 다례 안내

우리 민속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봉원사에서는 한가위 개별 다례(茶禮) 및 합동 다례를 봉행합니다. 한민족의 미풍양속인 차례는 ‘부처님께 차 공양을 올린다’는 뜻의 다례에서 유래하며, 조상의 극락왕생과 후손의 건강 및 화목을 비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풍성한 가을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안 내

- 날짜 : 2020년 10월 1일 (음력 8월 15일) 목요일
- 다례 봉행 문의 : 각 화주스님 및 종무소
- ‘영가들의 쉼터’ 합동다례 : 오후 2시 (문의 : 종무소 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일체의 재난을 없애고 자손의 만덕 기원

- 2020 경자년 칠월칠석 법회 봉행 -



지난 8월 25일(음력 7월 7일) 화요일 삼천불전에서 칠월칠석 법회가 오전 7시부터 봉행되었다. 마스크 쓰기과 손 소독, 체온 측정 그리고 법회 중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에 철저히 대비한 후 여법하게 치러진 이날 법회에서, 신도들은 신중단에 공양물을 올리고 자손의 부귀영화와 더불어 무병장수의 소원성취를 이루기를 기원하였다.

민간에서의 칠석날은 은하의 서쪽에 있는 직녀와 동쪽에 있는 견우가 일년 내내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일년에 단 한 번 7월 7일 밤에 만나 애달픈 사랑을 나누고 다시 헤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날이다. 이날은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머리를 서로 맞대어 은하수에 오작교를 놓아줌으로써 견우와 직녀가 서로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그 때문에 7일 날은 까막까치를 보기가 어렵고, 다음날 아침에 찾아보면 그들의 머리털이 모두 빠져서 빨간 살이 드러나 있다고 한다. 흥미로운 뿐만 아니라 애뜻하고 가륵한 설화이다. 그리고 음력 7월은 밀과 함께 과일 수확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그래서 과일이 잘 익으라고 원두막이나 밭에서 고사를 지낸다. 밀과 과일이 수확되면 칠석날 터주가리에 햇밀로 만든 밀떡과 참외 등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낸다고 전해진다.

불교에서의 칠석불공은 음력 7월 7일에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께 공양을 올려 가내에 태평이 찾아오고, 액란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며,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불공을 드리는 불공을 말한다.

옛부터 우리의 민속 신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칠성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특히 칠석날 밤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정을 통하는 날이므로 많은 이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성심 성의껏 소원성취(자식점지)를 기원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인간사의 길흉화복을 다스리는 칠원성군(七元星君)에게 정성들여 기원을 하였다.

이렇듯 민간의 칠성신앙은 불교와 융합되어, 칠석날에 칠석재를 마련하고 칠석불공을 하여, 자비로 나투시는 치성광여래께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빌고, 마침내는 중생을 성불로 이끌어주실 것을 기원하는 명실상부한 불교의식의 하나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시주접수처 안내



봉원사 도량 내에 새로운 기와불사 및 시주접수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주(施主)란 글자 그대로 '보시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도님들은 새로운 시주접수처에서 시주공덕을 쌓으시어 시련이 사라지고 더 많은 이익과 결실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 운영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 ※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수처 시간을 위와 같이 조정, 운영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제23장 상유품(象喻品)

화살을 맞고도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코끼리처럼 구도자는 온갖 고난과 고독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가라는 가르침

▶ 집에 어머니가 있어 즐겁고

人家有母樂 有父斯亦樂 世有沙門樂 天下有道樂
인가유모락 유부사역락 세유사문락 천하유도락

사람의 집에 어머니가 있어서 즐겁고
아버지 또한 계시면 더없이 기쁘듯
세상에 사문이 있어서 즐겁고
천하에 도가 있어 기쁘네

▶ 계율을 지키면 늙어서 편안하고

持戒終老安 信正所正善 智慧最安身 不犯惡最樂
지계종노안 신정소정선 지혜최안신 불범악최락

계율을 지키면 늙어서 편안하고
올바로 믿어 그를 즐기며
지혜가 있어 가장 몸이 편안하고
악을 짓지 않아서 가장 편안하니라

봉원사 경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73호 지정 -



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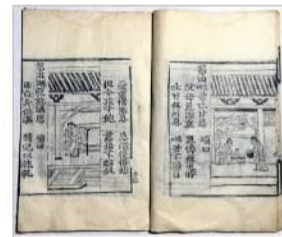
여래정례도



십은변상도(제1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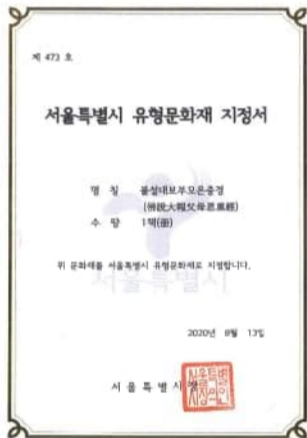
십은변상도(제2-3은)



십은변상도(제3-4은)



십은변상도(제5-6은)



제 473 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봉원사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한 문화재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서울시 유형문화재 6점과 문화재자료 2점이 지정되었다. 현재는 봉원사의 문화재 2점과 문화재자료 3점이 추가로 지정고시된 상태이다. 이번 호에는 유형문화재 제 473호로 지정된 명종 원년(1546년)에 간행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을 소개한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제목 그대로 부모의 은혜가 한없이 크고 깊음을 설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치는 경전이다. 중국 당나라 때 만들어진 위경(僞經)으로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와 조선 시대에 크게 성행하였다. 은중경은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인 교리가 아니라 유교의 기본 개념인 효를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과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판본이 남아 있는데, 조선 시대에는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87차례나 개관되어 범화경 다음으로 많이 간행되었다. 이는 유교사회인 조선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불교계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부모은중경은 위경이므로 중국에서도 『은중경』, 『부모은중경』, 『불설보부모은중경』,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등 다양한 이본(異本)들이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은중경은 모두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이다. 조선 시대에 간행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한문본은 물론 언해본도 1545년 초역된 이래 수십 차례 복각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임신에서부터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 대한 어머니의 은혜를 10가지로 언급한 계송을 10장면으로 그린 것이다.

본문 이후에는 진언과 간략한 시주질, 그리고 간기***가 기록되어 있어 1546년(명종 1) 황해도 서흥의 귀진사에서 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표지만 없을 뿐 결락 없이 전체 내용과 간기가 완벽하게 유지되어 있고, 특히 1546년 황해도 서흥 귀진사에서 간행한 은중경은 전해지는 사례가 흔하지 않아 희소가치가 있다. 현재 국내의 16세기 판본은 대부분 귀중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비록 후쇄본이나 각선이 이지러지지 않고 깔끔하며, 양호한 인쇄 상태와 지질 등으로 보아 간행시기에서 많이 내려오지는 않은 시기에 후쇄된 것으로 추정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본 문화재는 봉원사의 명부전 향우측 관관상에서 후령통 3점 및 『수륙무차평등재의활요』 등과 함께 출토된 보장품이다. 표지는 없고 본문 23장으로 구성된 목판본으로 선장본*이다. 책의 크기는 30.8×19cm이고, 판식은 반곽 20.7×15.3cm,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무계(無界)이다. 본문은 8행 15자로 배치되어 있다. 첫장 하단에 '불법승보(佛法僧寶)' 라 새긴 사방 7.8cm 크기의 큼직한 주문방인(朱文方印)이 날인되어 있다. 이러한 도장은 여타 판본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사례이다.

이 은중경 본문에는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린 변상도** 21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여래정례도(如來頂禮圖), 십은변상도(十恩變相圖), 팔비유도(八譬喻圖), 삼보공양도(三寶供養圖), 아비무간지옥도(阿鼻無間地獄圖)로 명명할 수 있다. 이 중 십은변상도는 이 경전의

*선장본(線裝本) : 인쇄된 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책장의 가운데를 접고 등 부분을 끈으로 튼튼하게 묶어 만든 책.

**변상도(變相圖) : 경전의 내용이나 부처의 생애 등을 형상화한 그림

***간기(刊記) : 책을 펴낸 곳, 펴낸 사람, 장소 등에 관하여 적은 것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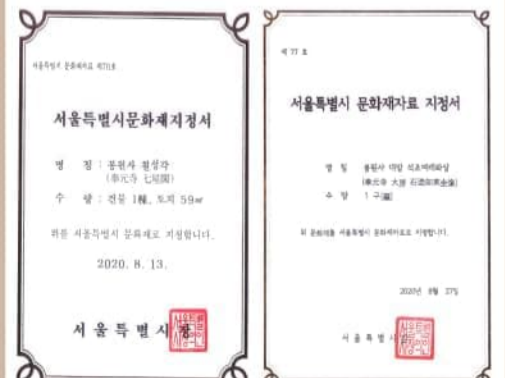
제 465 호 봉원사 약사불회도

제 466 호 봉원사 독성도

제 467 호 봉원사 산신도

제 471 호 목조건보살심존상 및 시왕상 일괄 수륙무차평등재의활요

제 472 호



제 76 호 봉원사 칠성각

제 77 호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최선의 결과를 향한 간절한 마음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백일기도 -



지난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봉원사 대웅전에서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백일기도 입재식이 봉행되었다. 백일기도는 수능이 치러지는 당일(12월 3일)까지 매일 새벽 5시와 오전 10시에 대웅전에서 진행되며, 정명 스님께서 기도법사 스님으로 기도를 이끌어 줄 예정이다.

이날 법회는 교무 법수 스님의 집전으로 거행되었으며, 주지 운봉 스님, 법사 만춘 스님, 기도법사 정명 스님 등 많은 대중 스님들을 비롯해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 등 백일기도를 접수한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만히 봉행되었다. 특히 이날 법회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참석명부 작성, 손 소독의 과정을 거쳐야만 참석이 허락되었다. 또한 참석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봉원사 총무소에서는 대웅전 외부에 신도들을 위해 별도의 자리와 의자를 마련하였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목요일)로 변경되었으며, 성적 발표는 12월 23일(수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한 번은 치러야 할 '대입수학능력시험'은 초·중·고 12년 동안 익혀 왔던 학업성취도를 평가받는 날임과 동시에 대학의 관문에 들어서는 인생의 큰 문턱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자주 바뀌는 수업 환경 때문에 제대로 공부에 전념하기 어렵고, 불안감 때문에 학업 성취도도 낮아 매우 불안정한 상태의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은 요즈음 그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법회에 참석한 주지 운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요즘, 수능 백일기도에 참석한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큰 힘이 되리라 믿으며,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 결과도 만족스럽게

나오길 기원한다."라고 하시며 참여한 신도들을 독려했다.

이어진 봉원사 법사 만춘 스님은 법문을 통해 "털끝만큼의 어긋남이 있어도 결론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법, 지금의 간절하고 정성어린 마음이 수능 당일까지 이어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백일 동안 자손을 계기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한다면 스스로 깨우치는 바가 클 것이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입장에서 수험생들에게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도하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 강조했다.

사실 시험이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지식만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는 옳은 기도라 할 수 없다. 그저 자식들이 무더운 여름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해서 공부한 만큼의 성과를 내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며 건강을 유지하기를 기원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 것이다.

I-SEOUL-U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남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

마스크 착용,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달의 시

가을에는

박제영

가을에는 잠시 여행을 떠날 일이다
그리 수선스러운 준비는 하지 말고
그리 가깝지도 그리 멀지도 않은 아무 데라도
가을은 스스로 높고 푸른 하늘
가을은 비움으로써 그윽한 산

가을은 침묵하여 깊은 바다
우리 모두의 마음도 그러하길
가을엔 혼자서 여행을 떠날 일이다
그리하여 찬찬히 가을을 들여다볼 일이다

안도현/시인

1967년 춘천 출생, 1990년 고대문화상 시부문 수상, 1992년 「시문학」으로 등단. 주요 저서로 시집 「그런 저녁」, 「식구」, 「뜻밖에도」, 「푸르른 소멸」, 「소통을 위한 나와 당신의」, 산문집 「대화」, 「소통의 필요시편지」 등이 있다.

● 사보 후원금 ●

- 이 승 환 1만 원(인공 스님)
 - 주 용 성 2만 원
-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전/생/이/야/기

본생경(자타카) 67, 68

자타카(Jataka)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알려졌고, 그 후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동서양으로 이어져 「이솝우화」와 「아라비안나이트」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판소리 「별주부전」으로 발전한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설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도를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전파된 것은 1세기부터 6세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67년 축법란이란 분에서부터 285년 축법호라는 분의 생경(生經) 번역까지 5차례에 걸쳐 700여 편의 본생 설화가 한역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본생경(本生經), 일본에서는 본생담(本生譚), 중국에서는 본생주(本生注)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독수리의 전생 이야기

보살이 독수리로 태어나 취산(鷲山)에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었다. 어느 날 취산에 큰 비바람이 일었다. 독수리들은 그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바라나시로 내려가 추위에 떨면서 남의 집 담 밑이나 노랑가에 앉아 있었다.

그때 바라나시의 한 장자가 성 밖으로 목욕을 하러 가다가 독수리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모두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는 불을 피우고 쇠고기를 가져오게 하여 독수리들의 추위와 배고픔을 덜어 주었다.

비바람이 멎자 독수리들은 원기 왕성한 몸이 되어 다시 취산으로 날아갔다.

독수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날 밤 회의를 열었다.

“우리는 바라나시의 장자한테서 큰 은혜를 입었다. 입은 은혜는 갚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 옷이나 장식품이나 그 밖의 무엇이든 손에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저 장자의 집 바깥 뜰에다가 떨어뜨리자.”

독수리들은 사람들이 옷이나 장식품을 별에 말리고 있는 것을 보면 틈을 엿보아 마치 매가 고깃덩이를 채듯 움켜 가지고 장자의 집 바깥 뜰에 떨어뜨렸다.

장자는 그것이 독수리들이 가지고 온 것임을 알고 모두 간직해 두었다.

얼마 후 어떤 사람이 왕에게 독수리들이 온 성을 휩쓸면서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 간다고 아뢰었다. 왕은 독수리 한 마리를 잡으면 다른 독수리들을 잡을 수 있다

고 하면서, 먼저 독수리 한 마리를 산 채로 잡아오도록 했다.

마침내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독수리 한 마리가 뒷에 걸렸다. 사람들은 그 독수리를 잡아 왕에게 가지고 갔다. 그때 마침 장자가 왕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다가 사람들이 독수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갔다.

왕은 독수리를 보고 물었다. “너희들이 이 성을 휩쓸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옷이나 장식품들을 훔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네, 사실입니다. 대왕님.”

“그것들을 어찌하였느냐?”

“바라나시의 장자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장자에게 주었는가?”

“그분은 우리들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드린 것입니다.”

왕은 독수리의 말을 듣고 장자에게 물었다.

“장자여, 독수리들이 그대 집에 옷가지와 그밖의 것을 가지고 갔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네, 대왕님.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어찌했는가?”

“따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물품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독수리를 풀어주십시오.” 왕은 장자의 청을 들어주었다. 물론 장자는 일일이 주인을 찾아 독수리들이 가져다 준 물품들을 모두 돌려주었다.

진두가 나무의 전생 이야기

보살이 원숭이로 태어나 8만 부하를 거느리고 설산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설산 가까이에 조그만 마을 하나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모두 떠나가 텅 비기도 했다. 마을 한 가운데에는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진두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마을에 사람이 살지 않을 때는 원숭이들이 그 열매를 따 먹곤 했다.

마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어느 해였다. 그해엔 특별히 진두가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렸다. 나무는 열매의 무게로 가지가 축 늘어졌으며, 사람들은 나무 주위에 대나무로 울타리를 세우고 아무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경비를 세웠다.

그 무렵 설산에 사는 원숭이들이 곰곰이 생각했다.

“마을에서 진두가 나무의 열매를 맛있게 먹은 적이 있다. 지금쯤 마을에 열매가 열렸는지, 사람은 사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들은 원숭이 한 마리를 대표로 뽑아 그 마을을 다녀오게 했다.

대표로 뽑힌 원숭이는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고, 진두가 나무의 열매가 흐드러지도록 많이 열렸음을 원숭이들에게 알려 주었다.

원숭이들은 진두가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렸다는 말을 듣고 신이 나서 왕에게 달려갔다.

“대왕님, 진두가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가?”

왕은 마을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부터 먼저 물었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왕 앞에 정직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사람이란 실로 교활한 동물이다.”

“그렇다면 대왕님, 사람들이 꼭 잠든 한밤중에 그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될까요?”

진두가 나무의 맛있는 열매를 먹고 싶었던 그들은 왕을 졸라 한밤중에 가도록 승낙을 얻어 내었다. 원숭이들은 설산에서 내려와 마을 근처로 다가갔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지자 진두가 나무에 올라 열매를 따먹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불일이 있어 집 밖으로 나왔다가 원숭이들이 열매를 따먹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러 온 마을 사람들을 깨웠다.

사람들은 활과 화살집을 메고, 돌과 막

대기 등 온갖 무기를 들고 나와 ‘날이 새면 저 원숭이 놈들을 잡으리라.’ 하고 나무를 포위했다.

8만 원숭이들은 죽음이 두려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을 구해 줄 수 있는 이는 왕밖에 없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다음 계승을 읊었다.

활과 화살집을 손에 들고
예리한 칼을 찬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방으로 포위당했나니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나리.

왕은 “두려워할 것 없다. 인간이란 일이 많다. 지금은 한밤중이다. 죽이려고 버리고 있는 저들에게 이 일을 방해할 만한 다른 일을 일으키자.” 하고 그들을 위로 하면서 다음 계승을 읊었다.

일 많은 그들이
무슨 일 일으키리.
진두가 나무 열매
마음대로 따먹어라.

왕은 그들을 안심시켰다. 만일 왕의 그런 위안이 없었다면 8만 원숭이들은 모두 심장이 찢어져 죽었을 것이다. 왕은 이렇게 그들을 안정시키고 한 곳에 모았다. 그러나 왕의 생질인 세나카가 보이지 않았다.

“세나카가 우리들 속에 없습니다.”

그들은 세나카가 사람들 손에 잡혀 죽은 줄 알고 잔뜩 겁에 질렸다. “아무 걱정할 것 없다. 그는 곧 너희들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왕은 그들을 위로 했다.

그런데 사실 세나카는 그들이 모두 모일 때까지 자고 있었다.

세나카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자 원숭이들에게 큰 위협이 일어난 줄 알고 마을 밖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에는 군불을 때면서 졸고 이는 한 노파가 있었다.

세나카는 그 노파의 눈을 속였다. 마치 발로 나가는 촌아이처럼 꾸며 손에 핫 불을 들고 나가 마을에 불을 질렀다.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 원숭이를 그대로 버려둔 채 불을 끄러 달려나갔다.

원숭이들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세나카를 위해 진두가 나무의 열매를 한 움큼씩 지고 설산으로 돌아갔다.

“음식물 쓰레기 걱정 싹~”

음식물 바이오 소멸기 및 살균수 생성기



업소용 음식물소멸기 가정용 음식물소멸기 살균수 생성기 싹수

- 캐나다 밴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녹색기술 인증기업” 선정
- 이노비즈 기업 선정, 정부 광고지원 대상 업체 선정

(주) 조은생활 문의 : 김순복(010-3182-3445)

조상님과 후손이 함께 나누는 한가위 다례(茶禮)

- 한가위 차례 및 합동 다례의 유래 -

경자년 음력 8월 15일(양력으로 10월 1일)은 설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명절인 추석(秋夕)이다. 추석날 지내는 차례(茶禮)는 불교 의식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차례는 우리 민족의 조상을 향한 미풍양속과 불교의 '다례'가 결합된 최대 명절 행사이다. 특히 추석의 차례는 '부처님께 차 공양을 올린다'는 '다례'로부터 유래 되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경덕왕 때 중담 스님이 매년 설과 추석이면 경주 남산 삼화령에 있는 미륵세존님께 차를 끓여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백장정규(百丈淸規 : 중국 선원(禪院)의 규칙을 서술한 원(元)나라 때의 불서(佛書))에는 차례의 뜻을 '한 솥에 끓인 차(茶)를 부처님께 바치고 또 공양드리는 사람이 함께 더불어 마심으로써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되고 또 절 안의 스님과 신자가 같은 솥에 끓인 차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질 요소를 동질화시키는 일심동체 원융회통의 의례가 차례이다.' 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유(抑佛崇儒 :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함) 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제례의식이 유교식으로 변화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차는 밀려나고, 그 자리를 술이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믿고 따르던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보름날 사당(祠堂) 영당(影堂)에 지내는 제에는 술을 쓰지 않고 차(茶)를 써야 한다'고 되어 있 그대로 '차례'로 지내라는 것이다. 실제 조선 초기 유학자 한재(寒齋) 이목(1471~1498)의 제사 흘기(笏記 :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에는 '국을 내리고 차를 올렸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불교적 전통인 차례는 제사 의식에 도입되어, 종적으로는 조상께 효를 다하고, 횡적으로는 가족과 일가친척을 하나로 결속시켜 일가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한국적인 명절 풍습과 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우리의 한가위 명절이 서양의 명절과 다른 점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조상님과 후손이 함께 경건하게 치르는 차례 문화라는 것이다. 또한 불교식 차례는 영가로 하여금 애착심을 버리고 미혹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도록 하는 전도* 의식의 뜻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전도(傳道) :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펼치는 것,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생활 속의 불교 용어(3)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불교에서 전래되어 온 말이 대단히 많다. 그만큼 불교는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말도 불교에서 나왔나 싶은 말들을 소개한다.

명색(名色)

불가의 십이인연(十二因緣)중의 하나로 명(名)은 형체는 없고 단지 이름만 있는 것이고, 색(色)은 형체는 있으나 아직 육근(六根)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단지 몸과 뜻만 있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실속 없이 그럴듯하게 불리는 허울만 좋은 이름을 의미한다.

실상(實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다. 현대에 와서도 큰 의미의 변화는 없이 실제의 모양이나 상태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점심(點心)

본래는 스님들이 새벽에 조금 먹는 것이나, 또는 일정한 식사와 식사 사이에 그때의 시장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음식을 조금 먹어 요기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끼니로 낮에 먹는 음식을 뜻한다.

진실(眞實)

참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방편으로 베푸는 교의(敎義 : 종교의 주된 가르침)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민간에서는 마음이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됨을 뜻한다.

집승

불교의 중생(衆生)에서 유래했다. '집승'은 한자어 '중생'을 표기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의미론 관련 서적에서는 '집승'이 '중생(많은 사람)'을 뜻하다가 오늘날의 '포유류'의 개념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보고 있다. 중생이란 단어는 부처의 구제 대상이 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나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숲속 한방랜드 24시 숲가마 사우나

도심에서 즐기는 숲가마 찜질 여행
당신의 생활 속 편안한 휴식을 드립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합격발원 백일기도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예년과 같이 대학입시생을 위한 합격발원기도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백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부처님 가피 속에 최선의 결과 기원합니다.

안 내

- 입 재 일 : 2020년 8월 26일(음력 7월 8일) 수요일
 - 기도 시간 : 매일 새벽 5시, 오전 10시(2회)
 - 장 소 : 봉원사 대웅전
 - 기도법사 : 정명 스님
 - 기도동참금 : 10만 원
 - 문 의 : 중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 스님
- ※ 기도기간 중 백일기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중무소나 각 화주 스님께 신청바랍니다.

조상의 풍류와 낭만을 따라서... 정자(亭子) 기행 66



악양루(岳陽樓)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90호 / 경남 함안군

악양루(岳陽樓)

경관이 빼어난 함안의 대표적인 정자



고, 앞으로는 넓은 들판과 제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국전쟁 이후에 복원하였고, 1963년에 고쳐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2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90

악양루는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산122번지 내에 위치하며, 악양마을 북쪽 절벽에 있는 정자로, 조선 철종 8년(1857)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 악양루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정자 아래로는 남강이 흐르

호로 악양루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12월 20일 '함안 악양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절벽 위에 위치한 악양루로 올라 가려면 좁고 비탈진 길을 지나야 한다. 왼쪽 발 아래로 남강을 두고, 과연 정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외지고 경사진 좁은 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덧 벼랑 끝에 자리 잡은 작은 규모의 정자가 눈에 들어온다. 정자는 가파른 벼랑 끝에 바짝 붙여 지은 탓에 악양루의 정면은 강 건너편에서만 볼 수 있다.

정자는 별다른 장식 없이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소박하게 지어졌다. 지붕은 옆에서 보면 팔(八)자 모양인 팔작(八作)지붕을 올렸다. 이곳의 풍광이 중국의 명승지인 '악양'에 비길 만하다 하여 악양루라 지었다고 전한다. 옛날에는 의두헌(倚斗軒)이라 쓰인 현판이 있었다고 전하여지나, 현재는 악양루라 쓰여진 현판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서예의 대가였던 청남 오제봉(吳濟峰, 1908-1991)이 썼다고 한다. 정자의 마루에 앉아 있으면 유유히 흐르는 함안천과 남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멀리 연이은 산들이 한눈에 보이고 남강쪽의 제방 너머로는 넓은 들판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다. 탁 트인 풍광과 시원한 바람으로 일상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사라짐을 느낀다.

악양루 전면을 보기 위해서 강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겨 본다. 강물과 마주한 절벽 위에, 그러나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지어진 정자는 자연과 동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전혀 인공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질푸른 산과 잘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보는 듯하다.

악양루 근처에는 나무터가 있었다고 한다. 이 나무에는 6·25 전쟁에 참전한 오빠를 대신해 노를 저었던 두 처녀가 살았다고 한다. 전후인 1953년, 유랑악단 단장이었던 고(故) 윤부길(尹富吉)이 함안 가야정에서 공연을 마치고 악양루 근처에 머무르게 된다. 그때 악양 나무의 처녀 뱃사공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전쟁에 나간 오빠를 기다리는 처녀 뱃사공의 애담은 사연은 1959년 노래가 되었다. 이것이 윤부길 작사, 한복남 작곡, 황정자 노래의 '처녀뱃사공'이다.

글/사진 선암 석인철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 자원봉사단 단원모집 안내 ☞

귀의 삼보하옵고,

봉원사 도량내 기와불사와 시주접수처 업무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봉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군부대, 소년원 등 사회 각지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파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실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봉원사 주차장 이용안내 ☞

봉원사를 찾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봉원사를 방문하시는 신도분들께서는 종무소나 각 화주 스님께 문의하시어 주차증을 발급받으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이 없는 경우에는 요금(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백원)이 발생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일반요금 : 기본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 무료주차 : 주차증 제시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 계획도



◆ 모연부재목(시주내용) ◆

단위:만원

| 부재명 | 모연금 | 부재명 | 모연금 |
|-----|-----|--------|-----|
| 추녀 | 500 | 서까래 | 20 |
| 사래 | 200 | 개판 | 20 |
| 도리 | 100 | 부연 | 10 |
| 장여 | 50 | 기와(대와) | 2 |



◆ 시주문의 ◆

종무소 : 02-392-3007~3008

삼천불전(三千佛殿) 보수·정비 불사

부처님 말씀에 ‘불사(佛事)는 복전(福田)이라’, 모든 중생에게 복에 종자를 심는 큰 터전이라 하셨습니다. 천년고찰 봉원사에서는 삼천불전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불사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장애를 모두 극복하여 보수·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불교 전통문화 보전과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큰 공덕을 짓는 의미있는 불사에 많은 신도님들 동참하시어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삼천불전 보수불사 시주자 명단(무순) ●

송진옥 백윤상 백아영 백지안 이유정 송명자 이영호 김용관 이영자 김주미 김희중 조준희 김선우 김선민 김주현 정현관 조현숙 조현정 조현아 이동균 한태희 김순자 이종현 김승하 한길수 송남운 심극택 서정주 최만상 황혜선 안종범 안종필 박성진 송복순 박성희 오승준 김종랑 박세연 김계분 조채원 이성덕 김해준 박종원 박근택 박예지 김두호 남대원 이정희 이진우 유경희 이만진 이관영 강기창 강경희 신덕순 백인후 이여주 최윤경 최윤화 최윤실 최윤희 최윤덕 장기현 박재기 윤석찬 백기영 황윤식 김정순 김세원 배규동 김상택 배민준 이상규 이상원 방대규 정금채 유정윤 이봉한 이미영 배극인 이승준 나정민 김소이 장필원 김동경 임벽해심 선우인철

시주해 주신 신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